

Epilogue1. 기출 분석 방법론(독서 上)

들어가며

『수능적 접근』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참고해볼 만한 독서 기출 분석 방법론이다.

물론 『수능적 접근』 자체가 미시적인 층위의 독해를 다루기에 여타의 인강, 독학서 등에 호환 가능한 점은 이미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출 분석 방법론을 적어보려 한다.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다.

풀이

첫 번째 과정은 풀이이다.

풀이를 진행할 때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신 속으로 ‘조금 빠르게 읽자’라는 나름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그 긴장 상태속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이 과정은 모두가 할 줄 알거라 생각하고 더 말하지 않겠다.

지문 분석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면, 지문을 먼저 분석해보자.

쉬운 이해를 위해 [260103]¹⁾을 공부한다고 가정해보겠다.

풀어보지 않았다면, 문제를 풀고 와서 글을 읽어라.

이정표 적용

여태 『수능적 접근』에서 이정표를 배웠다.

따라서 <예시>, <대비>, <일치>, <논증> 등에 대해 간단한 행동 강령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문제를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이정표를 찾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정표를 찾아보자.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2026학년도 수능 01번~03번에 해당하는 지문

①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②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③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④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⑤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⑥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

①: 일치가 등장한다. 어떤 개념(A)에 대해 설명구(B)를 활용하여 설명해주는 경우, 이를 분할한 뒤 재사용될 것을 염두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은 『수능적 접근』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 부분에서 2번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대비가 등장한다. 만약 이 부분을 깔끔하게 읽었다면 지나가고 만약 찝찝하면 일대일 대응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정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만약 찝찝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정표 앞	이정표 뒤
설명 방식	복잡	단순
빈도	많음	적음(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것 하나)

③, ⑤: 일치가 등장한다. ①에서 했던 것처럼 읽어주면 된다. 흥미로운 점은 ③을 분할한 뒤 재사용될 것을 염두하며 읽었다면, ⑤를 읽으면서 자동으로 ③과의 차이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럼 비교해보자.

피설명항	설명항
해독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
언어 이해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여기서 독자는 ‘해독’이 좁은 부분을, ‘언어 이해’가 조금 넓은 부분의 측면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독이 언어이해보다 먼저 되네~’)와 같은 직관을 얻을 수도 있다.

④, ⑥: 예시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해독’에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기’와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가 들어가고, ‘언어 이해’에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예시를 적용해보면, 독자는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와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가 ‘해독’에 포함되는 것을 염두하며 읽어야 한다. 『수능적 접근』의 표현에 따르면, ‘해독’에 꼬라박으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면, 필자가 ‘해독’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서술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기’는 <입으로 하는 것>이고,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는 <눈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 써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정표를 사용해보면 지문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시도해볼 수 있다.

2) 나중에 반증된다.

어휘 학습

물론 이런 이정표 학습이 끝났다고 해서 글이 제대로 들어온 건 아니다.

가끔 어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학생이 다음과 이 지문에서 '식별하다'라는 어휘가 궁금하다고 가정해보자.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 뭘 식별한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하자.

그런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자.

그곳에서 '식별하다'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식별하다

「동사」

【…을】

「1」 분별하여 알아보기.

(Ex1) 월남이란 마을에 가더라도 적과 주민을 식별할 방법이 없어서 누구에게 미소를 짓고 누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할지를 모르고… 《안정효, 하얀 전쟁》

(Ex2)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여러분의 명철한 판단력이……. 《선우휘, 테러리스트》

「2」 『군사』 방공 및 대잠수함전에서 탐지된 물체가 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다.

(Ex) 공군은 항공기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건 '식별하다'가 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우선 「2」는 아니다.

군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지워버리자.

식별하다

「동사」

【…을】

「1」 분별하여 알아보기.

(Ex1) 월남이란 마을에 가더라도 적과 주민을 식별할 방법이 없어서 누구에게 미소를 짓고 누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할지를 모르고… 《안정효, 하얀 전쟁》

(Ex2)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여러분의 명철한 판단력이……. 《선우휘, 테러리스트》

「2」 『군사』 방공 및 대잠수함전에서 탐지된 물체가 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다.

(Ex) 공군은 항공기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다.

그럼 「1」만 남게 된다.

‘식별하다’ 는 <분별하여 알아보다>라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아 ‘식별하다’의 의미를 곱씹어 보며 예시로 적힌 문장들을 읽어보았다.

(Ex1) 월남이란 마을에 가더라도 적과 주민을 식별할 방법이 없어서 누구에게 미소를 짓고 누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할지를 모르
고…. 《안정효, 하얀 전쟁》

(Ex2)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여러분의 명철한 판단력이……. 《선우휘, 테러리스트》

예시에 적힌 문장들에는 ‘무엇^A에서 무엇^B을’ 식별하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마을 전체^A에서 ‘적^B’과 ‘주민^B’을 식별한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A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임의의 지도자 후보^A에서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B’와 ‘그렇지 않은 사람^B’을 식별
한다.

아! ‘식별하다’는 [어떤 개체들의 집합]^A 속에서 [식별의 대상]^B을 골라내는 느낌이거나

이렇게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해봤다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보자.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 [식별의 대상]^B은 ‘단어’이고, [어떤 개체들의 집합]^A은 단어들이 모인 문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사과는 맛있다.

이때 ‘사과’라는 단어를 식별한다면, 저 문장의 ‘사과’를 식별한다는 것이다.

[식별의 대상]^B은 ‘사과’이고, [어떤 개체들의 집합]^A은 ‘사과는 맛있다.’라는 문장이다.

이해가 되는가?

‘어휘 학습’은 더 알아보고 싶거나 애매한 단어를 이런 식으로 사전을 찾아 그 의미를 더듬어가는 과정이다.

정보 재구성

전체적인 정보의 재구성은 결국 구조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명 강사들의 수업 방식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문을 함께 읽어 나가고, 동시에 칠판에 일정한 도식이나 구조를 그려 나간다.

이때 칠판에 그려지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강사 자신의 스키마에 따라 정보를 재구성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어떤 맥락 속에서 정보를 재배열하고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보 재구성’도 본인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공부했던 다음의 예시를 정리해보자.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

어떻게 정리하든 자기 자유이다.

아래 <방식1>은 내가 정리한 방식이다.

<방식1>

- 독해의 의미
-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독해 능력에 대한 연구: 복잡 VS 단순
- 해독과 언어 이해의 의미와 예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의미’, ‘요소’, ‘예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다.

다른 방식도 있다.

<방식2>

독해 능력			
해독		언어이해	
소리내어 읽기(단어)	식별(단어)	파악(중심 내용)	추론

이러한 방식은 ‘독해 능력’, ‘해독’, ‘언어 이해’ 등의 포함 관계를 트리로 나타낸 방식이다.

눈 여겨볼 점은 정보의 위계 관계를 가시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구조화하는 강사도 많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상관 없다는 것이다.

모두 다 본인의 정보 처리 방식을 정교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휘 학습’까지 끝냈다면, 스스로 ‘정보 재구성’을 해보자.

[주의] 정보 재구성

정보 재구성을 할 경우, 자신이 재구성한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무조건 타인에게 질문하지 말자. 혼자 최대한 매력적인 구조도를 만든 뒤에 타인에게 첨삭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구조도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재구성하기 위해 구조도를 그리는 작업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인 것을 꼭 알아두자.